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예술로 밥먹영 살아보게 마심 (17)

# 동영상 활용 가파르는데 행사 소개 문화달력만

온라인 제작 지원 증가에 콘텐츠 생산물 집적 필요  
제주 문화예술 종합포털 '제주인놀다' 운영 5년째 매체 변화 반영 플랫폼을

장치 필요=코로나19 사태로 제주에서도 공연·전시 등을 만나는 통로 중 하나가 동영상 채널이 됐다. 유튜브를 이용해 실시간 중계하거나 녹화 영상을 공유하는 일이 일상화된 모습이다. 무관중 비대면 행사가 증가하기 전에도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가 제작됐지만 지금까지 전례적이지 않았다. 곳곳에서 만들어지는 제주 문화 예술 관련 콘텐츠를 집적하는 일만이 아니라 사용자 편의에 맞게 탑재하고 교류할 곳이 필요해진 이유다.

경기문화재단은 2년 전부터 '경기컬처(gyeonggi culture)'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온라인 플랫폼을 가동하고 있다. 전시, 공연, 교육, 커뮤니티, 여행, 사람, 역사, 작품, 공간. 연구에 최근 코로나 시국을 반영한 예술백신까지 합쳐 11개 분야로 나눠 영문 자료를 포함 경기도에서 진

행 중인 문화예술 정보를 만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경기도 문화예술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역별 전시·공연 등 검색, 정보 제공 기능도 갖췄다.

▶제주형 뉴딜 과제로 최대 30억 소요 예상=제주지역엔 제주도가 '제주 문화예술 종합 포털'로 조성해 제주문화예술재단에 관리를 맡긴 '제주인(人)놀다'(www.jejunolda.com)가 있다. 문화예술 행사, 문화시설 정보, 직접 등록으로 게시되는 예술단체와 제주예술인, 문화자료실 등을 배치했다. 2016년 구축 이래 가동성을 높여가는 디자인 개선 작업이 있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간 방문자수가 41만3616명까지 늘었다. 이는 일평균 1133명, 월평균 3만4468명이 접속한 수치다.

하지만 올해 '제주인놀다' 운영에

산이 2100만원으로 삭감되는 등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홈페이지를 열면 월별 행사를 담은 '문화달력'이 화면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동영상 등으로 확장, 다변화하는 콘텐츠는 보이지 않는다. 제주문화재단에서 제작한 청년예술가 인터뷰 동영상 등도 별도 채널로 유통되고 있다. 더욱이 제주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공간의 전시 일정 변경마저 제때 반영되지 않는 등 허술하다.

제주도는 '제주인놀다'를 '제주형 온라인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을 한국형 뉴딜에 발맞춘 제주형 뉴딜 과제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 경우 20억~3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고예현의 '무엇 바다'.

## 저 바다 보고도 가슴뛰지 않는다면

고예현 서울 인사동 개인전 '꿈꾸는 제주바다' 내일부터

제주 고예현 작가가 '꿈꾸는 제주바다'란 이름으로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인사동의 동덕아트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고 작가는 이번 개인전은 여덟 번째다. 그동안 그려온 제주바다 작품 30여 점과 올해 전시를 위해 준비한 신작 30여 점 등 총 65점을 펼쳐놓는다.

동덕여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한동안 미술동네를 떠났던 고 작가는

2013년부터 매년 개인전을 통해 제주바다를 화폭에 담았다. 평면으로 이분화된 바다와 하늘의 대비를 통해 시간과 장소, 순간의 감정에 따라 파도치는 제주바다를 표현했다. 붉은 노을, 짙푸른 남색 물결이 있는 그곳은 작가에게 하루하루의 일상을 위로하는 시·공간이었다.

고 작가는 이 전시에 대해 "모든 이에게 바다는 그리움일 수 있고 꿈일 수도. 혹은 기다리다 지친 이들을 위한 위안이나 분노의 화신일 수도 있다"며 "이 바다를 보고 꿈꾸지 않으면 무엇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전선희기자

제주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6억9000만원), 제주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비대면 예술창작활동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4억5000만원) 등 온라인 기반 공모 사업이 잇따르고 있다. 비대면 사회에 맞춘 콘텐츠 생산이 늘면서 이를 알리고 소통할 제주 문화예술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구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사용자 편의에 맞게 탑재·소통할



고용석 도예전 '하얀 도자기'.

## 흙과 불 가는 대로 춤추는 달항아리

고용석 도예전 '하얀 도자기' 현대백자의 새로운 빛 탐색

전통 조선백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현대백자의 새로운 빛을 찾아가는 여정을 만나보자. 올해 제46회 제주도미술대전 대상 작가인 고용석 도예가의 열다섯 번째 개인전인 '하얀 도자기'전이다.

고용석 작가는 이번에 조선백자의

양식인 달항아리에서 영향을 받은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달항아리가 반듯한 정형의 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비정형의 형태를 지녔고 세상의 색을 모두 담은 듯한 미묘한 하얀색을 품고 있다며 "그것은 불의 흐름과 커다란 항아리가 조화를 이루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세계에서 나올 수 있는 도예작업의 결정체"라고 했다.

그 크기부터 남다른 달항아리는 도예가에게 그만큼 기술력과 경험을 요

구한다. 작가는 평소 현대백자의 작업을 하면서 영감이 떠오르지 않거나 휴식기를 가질 때면 달항아리를 만들어왔다. 꾸밈없이 절제된 미학을 지닌 달항아리를 제작하며 작업의 깊이를 더하려는 노력의 하나다.

전시장에는 달항아리 작품 10여 점이 나왔다. 인위적인 손의 욕심을 내려놓고 흙이 움직이는 대로, 불이 흐르는 대로 춤추는 달항아리를 빛어냈다. 이달 7일 시작된 전시는 29일까지 돌담갤러리에서 이어진다. 제주시 중앙로 하나은행 제주금융센터 지점 지하 1층. 전선희기자

### 문화가 켜지

#### 온라인 작은도서관 책 잔치

한라도서관(관장 채종협)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협회(회장 장동훈)와 함께 '친구해요 작은도서관! 책 잔치'를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이번 행사에선 한라도서관과 46개 작은도서관이 참여해 추천도서 서평 쓰기 등 SNS 이벤트를 이어간다. 26일 오후 2시 배우 류태호의 인문학 콘서트, 19일 어린이 대상 '마술하는 꿈아저씨의 랜선 매직쇼'도 준비됐다.

#### 제주대 신화 강연·탐방

제주대학교 도서관(관장 김소미)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으로 10월 31일까지 '신화, 제주의 삶을 만나다' 프로그램을 무료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가 강연(5회)과 답사(4회)로 꾸려져 '세계 신화와 비교한 제주신화', '신화의 현장을 가다', '문화콘텐츠로 이해하는 제주신화', '제주신화에 담긴 삶의 철학' 등을 주제로 한다. 도서관 홈페이지 참고. 문의 754-2204.

#### 제주어 생활수기 공모 연장

사단법인 제주어보존회(이사장 김정민)는 2020 제주어 생활수기 공모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한다.

응모자는 연령이나 지역 제한이 없다. 4000자 내외(12포인트)로 작성한 작품을 이메일(jejueo2008@naver.com)로 보내면 된다. 대상 1명에 200만원을 비롯 우수상, 가작, 입선을 선정해 상금을 수여한다. 이주인과 다문화 특별상도 있다. 문의 723-2495.

#### 문화유산 프로그램북 제공

제주문화유산연구원(원장 고재원)은 '2020문화유산교육 소중한 제주의 문화유산' 프로그램북 참가자를 모집한다.

비대면 사업으로 제작된 프로그램북은 색칠하기, 퍼즐, 미로찾기로 구성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이해하도록 했다. 8일부터 이메일(jech8362@hanmail.net)을 이용해 7세 이상-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 3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문의 712-8362.

## 마스크 쓴 오늘을 카메라에 담다

탐라문화제 국제교류전 20여개국서 150점 출품

마스크를 써야 하는 오늘을 기록한 사진들이 제주 전시장에 걸린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회장 이장훈)가 주관해 제59회 탐라문화제 국제예술교류사업으로 펼쳐지는 2020 국제사진교류전이다.

이번 교류전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감염 상황에 맞서 위기를 극복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피사체로 담아냈다. 참가국은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교류 도시와 동북아시아자치연합 등 아시아권 15개 도시를 비롯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등 남미권 21개 도시, 독일·이탈리아 등 유럽권 4개 도시 등 20여 개국 40개 도시에 이른다. 제주에서는 '코비드(COVID) & 휴먼(HUMAN)'을



브라질 줄리아나 라모스(Juliana Ramos)의 '여동생이 그리워 하는 해변 1'.

주제로 지난 8월 공모한 작품 중에서 30점을 골라 선보인다.

교류전 일정은 9월 1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와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이다. 전시 작품 150점은 영상으로 촬영해 제주도 유튜브 채널과 '제주사진갤러리' 사이트에 공개된다. 전선희기자

## 2020년 하반기 사원모집

**“제주솔라에너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젊은 열정을 찾습니다**

**모집기간** 2020년 8월 ~ 채용시까지 수시 모집

**지원방법** 워크넷/이메일/방문/우편으로 지원서류 제출

**지원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 및 A/S 기술자**

- 경력자 또는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자 우대
- 팀단위 협력 파트너(하도급) 별도 상담

**모집직종**

**전기 및 토목 분야 기술자**

- 공사/설계/공무/인허가 경력자 우대
- 해당분야 자격증/경력수첩 보유자 우대

**주택용 태양광 보조신청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사업 추가접수중
- 주택용 태양광 3kW 공사비 50% 보조
- 자부담금 251만원
- 선정방식 : 선착순 (예산소진시 종료)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문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